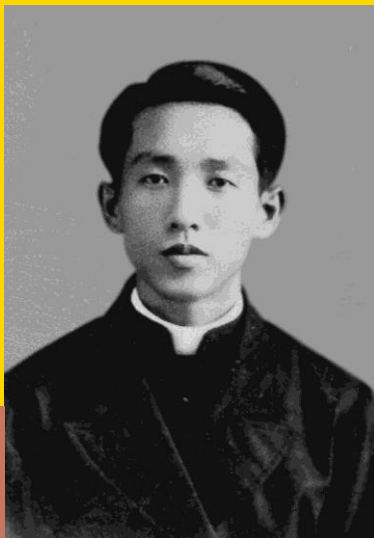




천주교의정부교구
DIOCESE OF UIJEONG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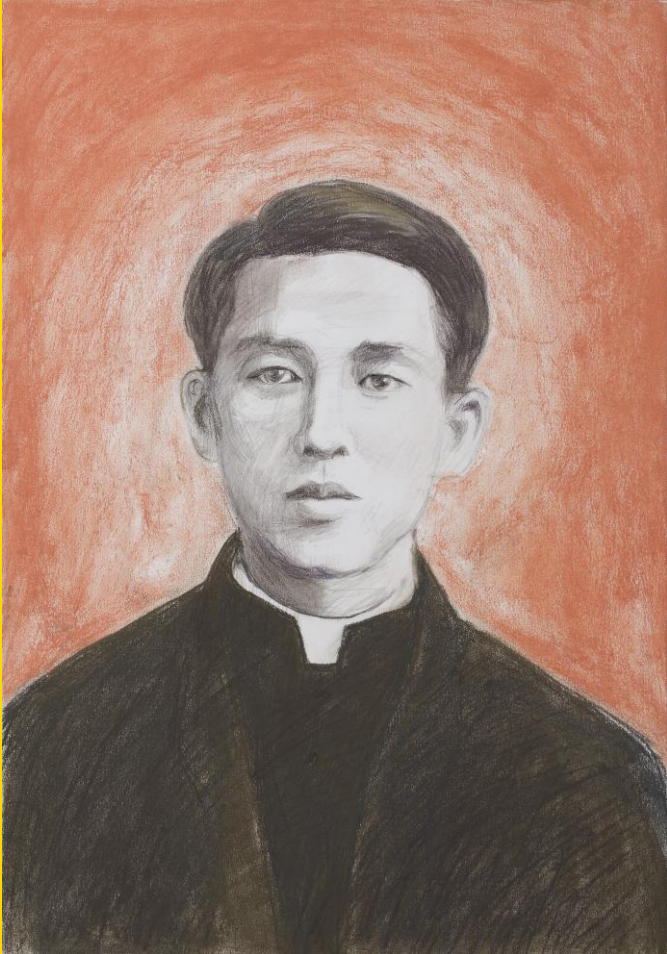
이춘근 라우렌시오 신부
(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

“내겐 하느님 섭리를
따르는 것 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의정부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

삶과 죽음,
선택의 갈림길에 선
이춘근 라우렌시오 신부...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닥치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춘근 신부는...

- 1947년 봄, 경기 연천군 전곡면(현 전곡읍) 전곡리 전곡역 ← *성대치료 위해 월남*

• 경원선 이남구간 : 용산역-동두천역 / • 경원선 이북 구간 : 전곡역-원산역

- 배웅 나온 김학순(마리아), 고모할머니(성명 미상)와 이춘근 신부

↳ *이정규(베네딕토) 전 신암리 본당 회장의 어머니, 고모할머니*

“꼭 가셔야겠어요? 이북이 어떤 상황인지, 신부님도 잘 아시잖아요?”

“교우들이 있으니, 들어가야지요.”

- 전곡역 출발, 덕원역(현 북강원선 세길역) 도착, 덕원수도원으로 향해

“왜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아시면서...)”

“내겐 하느님 섭리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영화 시나리오 한 장면 같은 서사... 하지만 순교를 예고하는 가슴 아픈 이별..

- 언제 죽을지 모르는 먼 길을 자청해 떠나는 목자를 눈물로 배웅하는 가족

- 언제든 양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춘근 신부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수도형제들...

이춘근 신부의 순교 여정



** 평양대목구 파견과 순교에 이르는 길

- 1948년 10월 만성적 사제부족에 시달리던 평양대목구에서 사제파견 요청
- 분도회 덕원수도원
이춘근 신부, 서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지도신부 겸 서포 주임으로 파견
- 성대 결절의 고통 안고 미사 주례, 강론, 피정지도...
보안서 끌려가 30시간 잡혀 구타당하기도...
동생 이근재 수사의 끈질긴 설득에도 월남 거부해
- 1949.05.11 덕원수도원 폐쇄, 수도승 전원 체포, 평양인민교화소 수감
- 1949.05.14 평양대목구장 홍용호(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체포,
평양교구 사제 대부분 체포
- 평양인민교화소 의무관 노재경씨 통해 옥바라지(약품 등 전달).
- 덕원수도원 루치오 로트 원장 신부
1949년 6월 16일 자 라틴어 비밀서한 보내 덕원수도원 전권 위임
- 1950.05.14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원 폐쇄(서포), 순안 공소 북 유일 미사
- 1950.06.24 밤 체포 연행 행방불명... 1950.10.05 평양인민교화소 내 피살 추정

이춘근 신부의 삶,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도자로, 사목자로, 마지막 덕원수도원장 대리로
수도승 수도회(Monastic Order)를 이끈 이춘근 신부가

수도승으로 살다간 11년 5개월은

‘안으로는 수도승, 밖으로는 선교사’를 사는

선교 베네딕도회(Missions benediktiner)의 모토에 맞닿은 삶이었고,

동시에 “삶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듣는다.”는

베네딕도회의 선교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충실히 살아냈던 삶이었다.

양주 신암리공동체는 어디에서 왔나?



****양주 신암리 얽힌 분단사(이춘근 라우렌시오 순교자기념 순례지)**

WHY? 신암리는 양주시 최북단에 있는데 왜 남면인가?

조선조 말 적성현 남면, 1914년 연천군 남면,

1945년 3·8선이 그어지며 연천군 공산화,

1945년 11월 남면만 파주군 남면,

1946년 2월 양주군 남면

전후 연천군 회복 이후에도 양주군에 남아.

**** 신암리 공소 설립**

1909년 2층 한옥성당 건립(첫번째 강당)

1907년 설(본당 구전)도 있지만

“신암리공소는 1909년 봄에 설립되었다.”(당시 신자수 61명)

-송도본당 르 장드르 신부, 1910년 4월 17일 자 사목보고서-

같은 남면 황방리의 원대이공소 옹기제작자들, 신암리로 이주

1909~1924년 평균 196.6명

양주 신암리공동체는 어디에서 왔나?



** 본당 승격

1927.06.-1932.09 공소강당(두번째 성당) 봉헌,
최문식 신부 부임

(경기북부 행주본당과 반반 관할,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가평)

이후 다시 공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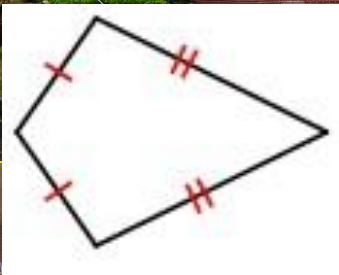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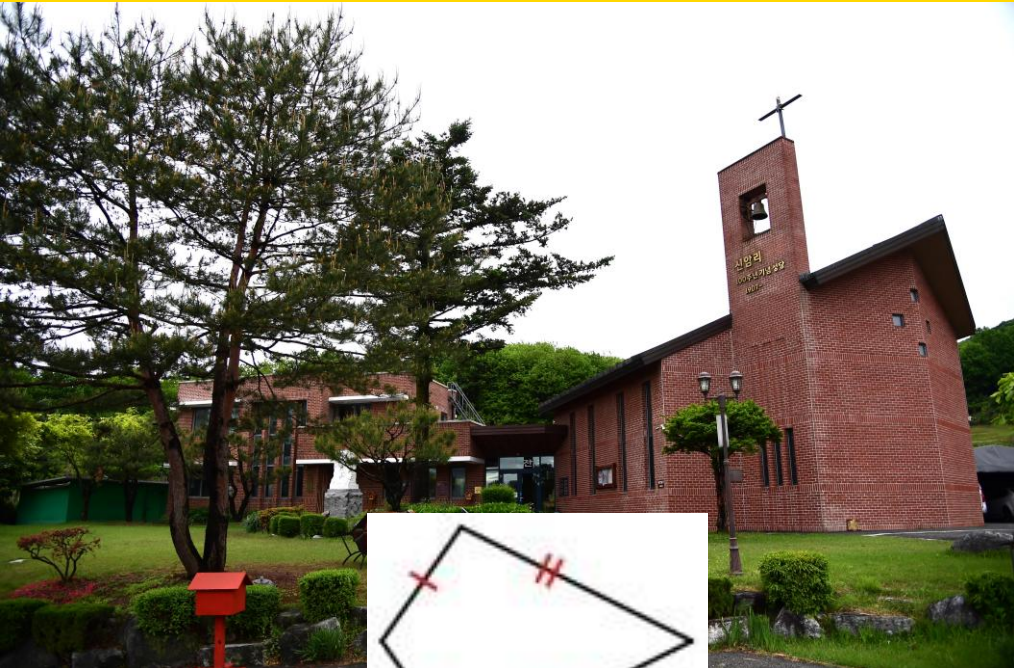
소속본당 : 행주→덕정리→의정부→동두천본당

1955년 6·25때 불탄 성당 재건(영국 군인들 도움)

2008년 9월 준 본당 사목구

2013년 8월 본당사목구 재승격.

100주년 기념성당 건립...



**100주년 성당(1909~2009)

- 오른쪽 성전, 왼쪽 사제관과 교육관 겸하는 '순교자 박 다미아노의 집'.
(두 건축물은 자비의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하느님 백성 맞아들이는 형태)
- 아담한 50평 성당, 물고기형상,
성전 내부는 연꼴(두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제단과 신자석은 최대한 넓히고 입구 좁힌 형태. 수직통창
- 순교자 박 다미아노의 집은 맛맛한 장방형 평면과 적벽돌 외장재 마감.
(병인박해 당시 평안도 박천 출신인 박 다미아노 순교자
충청도 당진에서 체포, 해미 순교, 신암리 회장 지낸 증손 박복선 파비아노)

• 설계와 성미술

- 설계 : 김정신 스테파노(1952년생) 단국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성미술: 윤명로 아우구스티노(1936년생) 서울대 미대 명예교수
종탑 십자가, 제대, 제대십자가, 독서대, 성수대, 감실,
십자가의 길14처, 유리화까지...

성당 나무문이나 주례사제 의자는 김형주 이멜다(1947년생)

- 100주년 성당 건축은 신암리 출신 이경훈 바르톨로메오 신부 덕에 가능